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 국가정책포럼, 2년을 돌아본다”

발제 1: 홍준형(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발제 2: 강원택(서울대학교 정치학부)

토론: 주경철(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이현숙(서울대학교 자연대학), 권순만(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홍기선(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김진국(중앙일보 대기자)

(요약)

< 홍준형 교수 경과 보고 - “국가정책포럼 2년의 발자취” >

< 강원택 교수 발제 주제 - “국가정책포럼, 이슈와 해법의 흐름” >

1.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하나?
2. 언제 해야 하나?
3. 누가 해야 하는가?
4. 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하는가?

< 주경철 교수 토론 의견 >

- 1) **전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 여러 측면에서 아주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고, 문제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
- 2) **발제자 및 토론자의 대표성 문제 제기:**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모시는데 이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분들이라 비슷비슷
- 3) **진행방식 변화 필요:** 현재까지는 찬반의견을 듣고 그냥 토론 후 마무리 되는 형식이었는데, 아주 긴급한 문제라면,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던지 간에 오늘의 결론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다수 의견이고, 소수 의견은 이런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맺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너무 학자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만하다 끝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 4)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유도 필요:** 많은 사람들이 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참여자 수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url도 마찬가지로이다.
- 5) **기획 단계에서 타 분야(이공계 등) 교수님을 참여시킬 필요성 제기:** 다른 분야 전문가를 모시면 같은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기도 한다.

< 이현숙 교수 토론 의견 >

- 1) **이공계 참여 절실:** 이공계 분야에서 서울대가 공공성을 내는 데 참여해야하는 게 시대적 요청.
- 2) **서울대 내부에서만 전문가를 찾지 말고, 외부 전문가 참여 증진 필요:** 서울대에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 발전 단계에서 완전히 맨 앞 선두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과학 기술 아젠다 세팅 단계에서 참여해야한다.
- 3) **이공계 주제 포함:** 예를 들어, 정치사회만의 아젠다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용어 정의를 다시 할 수도 있음 e.g.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 4) **결과물이 국가 의사결정체로 전달되어야 함:** 전문가들의 역량을 많이 모아서 국가 의사결정체로 전달을 하고 해서 좀 더 선진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데 서울대가 이바지 해야한다.

< 권순만 교수 토론 의견 >

- 1) 주제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주제와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모두 다루어야 함
- 2) 이공계 분야를 어젠다에 포함시킨다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인문학적 성찰을 함께 해야 함
- 3) 새로운 주제로 AI, ODA, 빈곤, 환경 오염 등 추천
- 4) 서울대 교수의 역할은 문제제기와 해답 찾기: 사회에서 보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를 탐색해나가고 선제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함. 당파성이 배제된 해답을 찾는 노력이 요구됨. 관료들이 생각하지 못한 수준의 정말 지식적인 수준에 있어서 비판적인 성찰이 들어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함. 그리고 현재 단기적인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뭔가 사회적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하고 차별성 있는 해결책들을 찾아줘야 함. 또한 그 해결책이 현실성이 있어야 함

< 홍기선 교수 토론 의견>

- 1) 포럼 결과가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함: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이 마련이 되었으면, 정책안이 마련되면 그게 정부와 각 기관에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이 위원회나 아니면 서울대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
- 2) 향후 추천 주제는 교육과 사회통합: 우리 사회가 어떤 인재를 목표로 하고 어떤 국가를 목표로 하는지를 바꿀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 3) 조직위원회에 인문학과, 이공계 교수님들 그리고 젊은 교수님을 포함시켜야 함

< 김진국 대기자 토론 의견>

- 1) 포럼의 결과물들을 묶어서 최소한 자료집 또는 책자로 외부로 홍보해야 함: 특정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책결정자들이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2) 홍보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
- 3)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주제를 다뤄야 함: 각 부처 장관들은 임기 내 무언가를 해내야하기 때문에 단기적 정책 위주로 가고, 언론은 주로 그에 맞춰서 나감. 학문을 사람들은 이와 다른 접근을 가져줘야 함.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를 제기해야 함

< 청중 의견 >

- 1) 국가 정책포럼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라운드 테이블이 되어주어서 좋다고 생각함.
- 2) 국가의 목표가 무엇인지 거시적인 질문을 해야 함: 예를 들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이 큰 방향성이나 목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함
- 3) 학생들 특히, 학부생들을 참여시킬 실질적인 방안 마련해야 함

< 녹취록 전문 >

(홍준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9회 국가정책포럼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 국가정책포럼 2년을 돌아본다라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형 교수입니다. 그동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출발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서울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갖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나중에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챙기지 못했던 점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리막길로 급격하게 가는 시점에 국가정책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시작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사라졌던, 존재감이 없었던 서울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인 정의성은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기회가 되면 총장 후보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인용하면서 서울대의 소명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가 의문시 될 때, 서울대가 소임을 제대로 다했는가 제대로 목소리를 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서울대가 과거에 신비주의로 가거나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역량을 총 동원해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이해 관계와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에 봉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대가 우리나라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연구와 교육 활동이 주가 되지만, 사회봉사도 있지만, 이와 같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서울대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국가정책포럼을 시작했는데요. 2년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많았고, 여러 방향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2년을 맞이하여서 이 기회를 통해서 서울대 구성원들이 가졌던 생각이나 바라는 바를 듣고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는 제가 이제까지 경과보고를 간단히 하구요.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 강원택 교수께서 간단하게 발제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세션인 오늘 토론자로 오신 다섯 분의 패널리스트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올리면 서울대 인문대 주경철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주경철 교수님은 vip 중의 vip이고 아주 훌륭한, 역사서양사, 세계사 관련 단행본들을 많이 냈습니다. 앞으로 뭘할지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또, 자연과학대학의 이현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현숙 교수님은 생명과학분야를 전공하셨지만, 가장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계신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보건대학원의 권순만 교수님 오셨습니다.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을 전공하시고, 우리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출국 예정이셔서 참석이 어려웠는데 제가 긴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출국 비행기표를 연장해서 오셨습니다.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기선 교수님 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 영문학과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면서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다양성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진 서울대학교 최상급 소통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성 이슈를 가지고 중진을 모아서 계속 파워풀한 보고서들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앙일보 김진국 기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진국 대기자님은 훌륭한 붓을, 일필휘지로 써주고 계시고 또 우리 다양성위원회 위원장하시면서 서울대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서울대를 빛낸 상을 받으셨고.. 다섯 분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형)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정책포럼은 국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나라의 미래를 정하고 국정의 기본 방향과 관련된 과제들을 서울대 교수와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해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으로서 서울대가 국립대학의 지성적 역할을 선도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우리가 선도를 하고 있느냐는 그런 존재론적인 회의와 함께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역량과 의지를 발휘해서 그런 역할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론이 분분하고 나라의 앞길이 불투명해지는 시기에 있어서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서울대 구성원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토대로 해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직을 했구요. 계속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개최를 해서 공론장을 조성하고 이 공론장을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라던지, 개혁 정책이라던지 주요 국정과 관련된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다른 대안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출범은 7개 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제학 분야 주로 사회과학분야로 출범을 했구요. 현재는 9인의 교수, 7개학과 출신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 계신 강원택 교수도 그 중 하나이고, 경제학과 김병연 교수,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 정치학과 김의영 교수,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 생활과학대학 최현자 교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16년 10월 27일부터 협치는 가능한가, 위험받는 삶 해법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협치 가능성을 모색을 했고.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를 모시고 아주 흥미로운 분위기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행히도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낙선을 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미투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시장은 살아남았는데요. 앞으로 이 두 분이 연단에 서주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12월 6일에는 탄핵정국 국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2017년 6월 7일에는 언론사 주필과의 대화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감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9월 14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논쟁 특히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10월 30일에는 성낙인 총장님이 오셔서 한국의 미래 향로를 결정하는 개헌을 말하라는 제목으로 발제와 토론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성과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당시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셨던 김지영 전 대법관, 김석호, 박민규, 박원호, 한규섭 교수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검증위원단을 구성하셨던 교수님들이 발제와 토론을 했습니다. 7차 대회는 2018년 평창올림픽과 한국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2월 6일날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조직위원장을 맡은 후 첫째 포럼으로 10월 29일날 국가의 미래 안녕한가라는 제목으로 넘어가는 국가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가 이슈들을 점검하는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주제로 10차 포럼을 갖게 되지만, 그것은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메가 이슈 중 하나로 잡은 것입니다. 총 8회에 걸쳐서 국가정책포럼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도 있었고, 유익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궁리하고 애를 써서 우리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점에서 질책을 받아 마땅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강원택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5분의 토론, 포럼에 계신 여러분들의 문제제기를 통해서 국가정책포럼이 좀 더 튼튼하고 발전적인 미래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원택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강원택)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원택입니다. 처음부터 이 포럼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목은 홍준형 교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썼구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어떤 주제를 다뤘고 누가 참여를 했고 얼마나 자주 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오늘 사실 주인공은 토론해주실 분들.. 그동안 포럼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요. (1-10차 포럼에 대한 설명 ... 생략) 9건의 행사를 4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던지고 돌아보자는 게 저의 주제입니다. **첫째는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만들었을 때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국가정책포럼은 국가 과제 및 사회 어젠다를 발굴하겠다.

국가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 문제와 한국 사회 발전을 좌우하는 거시적 쟁점을 선택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다뤘던 주제들이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대체로 다 국가과제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들인데. 제가 살펴봤더니 선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카데미한 힘을 가지고 사회적 흐름을 읽고 학술적 입장에서 얘기해줄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기에는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고, 축적된 경험도 없기 때문이기도 할텐데 현상을 쫓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주제 정할 때 참고를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개 정치적 현상을 많이 다뤘습니다. 아무래도 여전히 강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대통령이 제시하는 어젠다 세팅의 파워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의지에 따라갈 수 밖에 없지만 지나치게 정치적 현상, 사회적 현상에 매몰된 게 아닌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연과학, 과학기술, 환경 등 확대된 형태의 주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시기적으로 두 번, 네 번, 후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시기에 맞게 했다고 보면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면 뒤따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중이나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나치게 가지않았나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게 중요한 주제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잘 안 다루지는 주제를 선제적으로 던질 수도 있으니 혼합된 형태로 갈 수도.. 제가 생각한 것은 정기적 형태는 내부에서 어젠다를 발굴해서 사회에 던지는 형태의 것으로 가고, 지금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길을 못 찾거나 잘못가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주는 형태가 혼합되면 어떻겠느냐. 정기적으로 2번은 못을 박아놓고, 나머지 2번은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목소리를 냅니다만, 그동안 참여자들이 정치인, 언론인, 외부 전문가들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우리가 한 거지만 우리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고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우리만 하는 거... 뭐더라?** 이게 이 대다 우리끼리 했었던거데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안 오고 사람도 별로 안 오고 재미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이 가는 게 이런 형태의 모임은 다른 형태의 세미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학교 안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포럼은 외부 명망가들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학술세미나라기 보다는 사회공헌의 의미도 있으니까 외부 전문가를 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현상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다보니 주제가 편향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 환경, 공학, 의학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관심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전 문제도 조직원 수준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이 잘 안 돌아갑니다. 학교 내 보다 풀을 넓히거나, 학교 내 자문위원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걸 개선해야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왜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순 교수님께서 가슴기 사건 때문에 세미나를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서울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서울대 교수 한 명이 거짓된 프로젝트 결과를 냈기 때문에... 매우 거칠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욕 들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욕을 먹었습니다. 그 때 생각한 것이 외부에서 서울대를 바라보는 시선, 책임감의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서울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뭐구나.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sky로 우리 대학이 분류되는 것이 불쾌하다는 것인데. 국립대학으로서의 우리 대학이 가진, 원래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해방 이후에.. 46년에 국립 서울대학이 만들어지고 정치학과 같은 경우 그 해 말부터 생겼는데요.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원래 이 학교를 국립대학으로 만들었을 때는 공공성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카데미한 것을 중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공성에 대한 관심과 기여라는 것은 우리에게 원래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부 공감대에 대한 것인데, 이게 서울대 이름을 달고 나가는 국가정책

포럼이지만, 다양한 목소리들이 전달되고, 전달되도록 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전달이 되어야 할 테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얘기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자, 혹은 다른 논의도 들어보자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간단한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한 고민을 한다던지. 아니면 이런 논의 자체가 보다 폭 넓은 사회적 논의나 관심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지금까지 2년 반동안 10차례 포럼이 이뤄지게 될텐데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할 주제를 4가지 주제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형) 우리 속사정을 드러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총장께서 이제 이 포럼의 후원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는 총장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총장의 특별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려는 내부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총장으로부터 독립성, 자율성을 갖는 기구가 되어야한다는 것이 저희 조직원위원회의 확인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비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가 처한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카리스마, 신비주의로 총장이 한, 두 마디 국가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면 경청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가 지난 10년 정도부터 서울대학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서울대 분들이 자제하신 탓도 없지않아 있었을 것 같고, 하지만 서울대 교수님들이 다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서울대 구성원들이 이런 공론장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해서 서울대 구성원들이 많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4대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한다던지 이런 대응을 하긴 했지만.. 자유롭게 서울대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도출하는 개방적이고 또 속의가 담긴 그런 프로세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포럼을 통해서 그런 서울대 구성원들의 내적인 요구와 외적인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봐주시고 비판을 해주셔야지만 발전가능성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를 지금 다섯 분이 초대장에 적혀있는데 이대로 쪽 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주경철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주경철) 순서 정할 때 1번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노래방하고 비슷합니다. 준비했는데 다른 분이 얘기하면 당황스러운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강원택 선생님이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나를 왜 불렀지? 딱 저 얘기인데. 문제점, 장점, 개선할 점, 아쉬운 점 그런 거를 거의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걸 스스로 확인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팩트일 것 같습니다. 놀랄 정도로 표현까지 비슷한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추가하면서 제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포럼에 많이 참여를 안 해서 이런 식의 토론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살펴보고 링크가 되어있어서 볼 수 있는데 샘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단 잘 하신 점, 더 나아가서 부러운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이 최고의 집단 지성,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모시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국가 과제의 사회 어젠다를... 이 목표가 어떻게 보면 평범한 표현 같지만 서울대가 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실제로 추진한 것들을 보면 2년 밖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 2년 동안에 분기마다 1번씩 굉장히 묵직한 주제들을 잘 해왔다는 것은 놀랄 정도이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잘 해오셨다하는 그런 생각..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명단을 보면 이

게 정말 한국에서 모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분들 아닌가.. 여기서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걸리고.. 그 분들이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진행방식도 봤더니 굉장히 대표 토론 발표가 있고,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이 있고. 경우에 따라 달랐겠죠? 여러 측면에서 아주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성찰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요새 인문대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성실하게 연구를 하신 분들이 사회에 대해서 아젠다를 제시하고 논의를 해보자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과들이 모여서 의미있는 행사를 한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시다만, 일단 좋은 점.. 잘 하고 계신 점, 부러운 점이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 하고 계신데 생트집잡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일단 어젠다 선정이죠. 연초에 기획 위원들이 모여서 10개 주제를 만들고 그 중에 추려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강원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현실에 떠밀려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상적으로 하면 선제적으로.. 머리에 그 말이 떠올랐는데, 석학급의 분들이 모여서 하신다면, 사회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걸 뒤따라가면서 설거지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판을 먼저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잘 파악해서 그거 좀 판을 마련을 해야 훨씬 더 의미있고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준비를 하면서 머리에 떠오른 게 소련이 몰락할 때, 소련 몰락을 예측한 학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한 명 있었다고 그래요. 프랑스에 엠마뉴엘 토드라고 하는 인구학자이면서 통계학자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갔다, 이유는 수치들이 이렇고, 유아사망률 높아지고 있고, 사회안전망 높아지고 있고.. 그 사람만이 거의 유일하게 했다는데. 그 때 과연 사회과학이라는 것의 예측력이 이렇게 없나? 일 년 후면 무너지는데 일 년 전에 모여서 엉뚱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사회가 어떻게 지금 방향이 역사적으로 보면 지나고 나서는 눈에 보이지만 흐름 속에 있으면 조금 가다가 뒤집어질지 잘 모르죠.. 말이 그렇지 **선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논의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논의의 주제들이 너무 뒤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그런 점에서 공을 들이셔서 주제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럼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표성이 정말 완전하게 확보되느냐 공정하냐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모시는데 이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분들이라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게 제가 원전 신고리 5,6호기 문제에서 아는 어떤 교수님이 어떤 방향성이 있는 분들이죠? 과연 여기 모인 분들이 이런 성향의 분들이 아니신가? 이런 문제는 늘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색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습시다만, 제가 살짝 링크된 걸 보면 역시 교수님들이라 너무 원론적인 좋은 이야기, 중요하지만 들어두면 좋지만 확실한 그런 이야기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역시나 대안은 다른 쪽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성찰의 요소들을 제공하겠나?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너무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딱 부러지는 답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 논의가 어떤 때는 거칠고 투박해서, 서울대가 정제되고 학자다운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뭔가 한 번 답을 내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원전 때려치웁시다, 계속 합시다라고 한들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대충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는 것 보다는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행방식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고, 아주 긴급한 문제라면,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던지 간에 오늘의 결론은 이리이러한 이유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다수 의견이고, 소수 의견은 이런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맺어보는 게 다이나믹하고 장사도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강 선생님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여인원이 많아야 되고. 도서관 url도 과연 몇 명이 들어오는가..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질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원래로 돌아가서 어떤 어젠다를 할 거냐라고 할 때 역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거기이고 문제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공계 선생님들의 참여를 해서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똑같은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잡아볼 수도 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공계 선생님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목소리가 뭐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에필로그로.. 서울대가 압도적인 1위, 모든 방면에서 1위 그거를 고집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젊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고대, 연대 훌륭한 대학들이 크게 발전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이 생기는 게 좋은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1위를 한다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서울대가 1등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 보다 글로벌한 방식에서 보는 시각을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다른 대학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잡아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게 서울대의 과제가 아닌가.. 안 해도 될말인데 강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홍준형) 그야말로 전부에 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어서 이현숙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사실은 공고날 때 관심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시간없다, 겹친다 핑계대고 못 왔는데 오늘 강원택 선생님이 정리해주신 내용을 보고 서울대 공공성을 위해서 나름 지난 2년 동안 노력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이 안 오셨어도 도서관 url을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주경철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공계가 서울대 공공성을 내는 데 참여해야하는 게 시대적 요청으로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불러주셨다고 보고 감사드립니다. 반성도 많이 했구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인데, 제가 몇 개 지난 사건들의 경험과 시대를 통해서 과학자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연과학대학 소속이고 생명과학부 교수이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일단 바깥에서, 일단 하나 먼저 반성을 드리자면 서울대학교에 대표적인 이공계인 자연대나 공과대학 교수들이 매우 바빠요. 자기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어찌보면 국가가 이런 걸 해야됩니다, 서울대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연구재단에서 공고가 나는 연구비를 따라 다니느라 바빠서 목소리가 실종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내부적으로 역량을 모아서 서울대가 먼저 제시하는 걸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잘 못했습니다. 구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각자가 반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 인문사회계 선생님들 대비 잘못된 점인데. 어찌보면 각자 연구하고 일 하느라 바쁘고 하니깐, 연구성과 내서 발표 나면 저 정도면 됐다고 하는 게 학교 내부적으로 강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가슴기 사건이 그랬고, 원전. 제가 경험한 거지만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때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서울대 황우석 사태에 책임있는 분을 처음에 임명을 했다가 반대를 했죠. 특히나 서울대 교수들의 반대 성명과 서명이 나간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서 낙마를 했는데. 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과학정책을 이끌어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선언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이었는데. 바깥에서는 서울대 과학 기술 공학자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요즘 인공지능,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디서 먼저 나왔

나면, 각자 연구실에서 연구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아젠다 세팅이 정치권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하는 식으로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서울대가 사실은 이런 걸 먼저 제시해주지 않으면 과학 기술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젠다 세팅은 과학계에서 해야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쫓아가기 급급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국가정책포럼이 제시하는 문제를 받아들여서 이공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리이러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대비하고 연구를 먼저 시작해야된다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 인재를 키우는 방법이고, 이제는 인문사회계 선생님도 궁금해하는데,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내부 역량만으로 가능할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의 분 혹은 기술 발전 단계에서 완전히 맨 앞 선두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과학 기술 아젠다 세팅 단계에서 참여해야되지 않나. 서울대가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서 아젠다 세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시선을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 돌려야 되고. 대학과 사회가 같이 호흡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말씀하시는 university 4.0이라고 하는.. 그래서 진짜로 대학과 사회가 같이 호흡해야되는 것 같구요. 내부 역량이 지금 현재 단계는 과학기술계에서는 서울대학교에 각각 한 명, 한 명은 뛰어나다고 보는데 내부 역량을 결집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학계에서 각자가 경쟁하고 있는데, 자기 연구 분야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서울대가 반드시 해야할 것. 국가 사회에 기여해야할 부분을 모으는게 필요해서. 당장에 되면 좋겠지만 이제까지 습성이 있어서 제가 강원택 선생님의 발제와 주경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어쩌면 2년 동안 정리하신 것이니까.. 앞으로 국가정책포럼에 정치사회만의 아젠다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용어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너무 친숙한 단어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토론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대안을 제시 못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만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나아가서는 가장 선진적으로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자들을 보면 항상 급급한 것이 정치사회적 이슈이고, 과학기술 이거는 은근하게 가는 거니까 경제정책하고만 맞물려서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선진국가라는 데 쫓아만 가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시효가 다한 것 같아요. 시효가 다했구요. 예를 들어, 케네디 대통령은 우주, 달, 그 다음에 닉슨은 암과의 전쟁, 빌 클린턴은 유전자 모두 다 염기 해독하는 거 그리고 오바마가 뇌 지도, 정밀의학 이렇게 내세우는 것처럼 어쩌면 사실 사람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 시대를 여는 제시같은 게 미국에서 되어왔는데.. 왜 그렇게 해왔냐를 생각해오면, 국경이 열려버리는 시대에는 다른 미국의 대통령이 선언하는 거, 이제 앞으로 저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서울대의 면모에 맞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과학자로서 많이 하기 때문에. 역량을 많이 모아서 국가 의사결정체로 전달을 하고 해서 좀 더 선진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데 서울대가 이바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젠다가 이공계에서 도출이 된다고 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자연대, 공대, 농생대 교수님들도 참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준형) 감사합니다. 기대했던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권순만 교수님..

(권순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건대학원에 있는 사회과학자이구요. 과 이름도 정책관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책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요. 좋은 포럼을 마련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선생님들의 말씀 다 동의하구요. 역시 이런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opic일 것 같아요. topic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시의적절한 토픽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갈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 문제도 도외시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토픽을 정해야할 것이고. 결정된 토픽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대학교로서 그런 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은 다양한 시각과 접근을 가지고 보는 여러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앞으로도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지난 토픽을 보면 다 좋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정책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한달지, 공론화 과정 역시 저도 개인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관료주도적이고 전문가주도적인 보건의료정책에 어떻게 하면 시민참여를 많이 하고, 공론화의 방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고령화, 지방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토픽을 잘 마련해오셨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포럼이나 다른 형태의 공청회 같은 데서 접근하지 못했던 형식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지성들이 모여서 새로운 시각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말씀하신 것들에서 추가한다면 AI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어떻게 인문학적 성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좋은 주제인 것 같고. 아주 시의적절한 문제를 따지면 북한 문제, 물론 통일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빈곤의 문제를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가 있어서 ODA나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염이나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좋은 토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럼의 특징적인 이야기 외에 사실은, 전공 자체가 정책 혹은 정책을 하다보니까 행정대학원이나 보건대학원에 저처럼 저와 같은 분야의 교수들이 항상 마음 속에 갈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자의 ROLE이 뭘까? 정부의 많은 위원회도 불러다니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학자가 어느 정도까지 현실에 개입하고 어떻게 현실에 공헌할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고민과 성찰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또, 좀 더 현실을 알고 싶어서 저는 국제개발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몇 년 전에 학교를 휴직하고 아시아개발은행 본부에 가서 아시아 후진국에 보건의료 문제 총 책임자 일을 해보면서 현실과 아카데미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책학에서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이 존 킹던이란 사람이 아젠다 세팅과 관계되어서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이 아니라, 세 가지 stream이 만나는 곳에서 정책이나 정책의 변화를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 문제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풀어야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만은 안 되고, 정치적인 면에서 큰 정권의 교체랄지 이런 세 가지 stream이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학자 또는 이러한 정책 포럼이 이 세 가지 stream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일부 교수님처럼 정말 행동 실천가로서 현장에 뛰어들어서 정치가에 가깝게 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문제제기.. 그것도 사회에서 미처 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근본적인 문제를 탐색해나가고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디어 역할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차별화된, 더 나아간 궁극적인 root problem에 대한 의견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고 논의하고 그런 해결책들이 첫째는 굉장히 당파성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좋겠죠. 두 번째는 다른 전문가들이 제기하지 못한, 또는 일반 관료들이 생각하지 못한 수준의 정말 지식적인 수준에 있어서 비판적인 성찰 또는 지금 현재 단기적인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뭔가 사회적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래야 차별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원론적인, 너무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교수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갈등인 것 같아요. 특히 저도 아시아개발기구에서 일을 해보면서 처음.. 당연히 많이 듣는 소리가 역시 교수라, 교

수처럼 일하게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장에 가서 내 발에 흙탕물을 묻히면서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관료들이 이래서 이렇게 교수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겠다는 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불끄는 소방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있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소방수 역할에 소방수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지나치게 담론만이 아니라 중간 수준에 있는 논의나 함의도 좀 제시해야 되는 그래야만이 아마도 학자들이 사회에 좀 더 기여한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포럼도 의미있고 원래 의도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50대 중반이 되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젊은 교수일 때도 이야기하다보면, 특히 저희 과는 행정대학원과 비슷하게 정책관리학과다 보니 젊은 교수님들하고 학자의 역할이 뭘가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주제넘게 제언을 한다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연구에 매몰되면 정책학과 교수로서 정책을 외면하는 오류에 빠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교수들이 지나치게 현실 정책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처럼 테뉴어받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연구성과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책에 참여하고 제시하고 담론을 제시하는 포럼을 하면서도 우리 학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해나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말 자체가 좀 뜬구름잡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실제로 일하는 정부 관료는 저희의 의견이 정말 필요해서일 수도 있지만, 저희의 참여나 저희 의견을 방패막이로 사용되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런 한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형) 그럼 다음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신 홍기선 교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선) 앞서 말씀하신 선생님들의 말씀과 겹치는 부분도 많지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서울대와 사회가 함께 국가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강원택 선생께서 던지신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마지막 질문인 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립대학법인으로서의 책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는 서울대가 한국에서 자타공인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또는 우수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육연구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가 전공분야인 분야인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지금은 대학과 사회 간에 연계가 필수적이되어가고 학문 분야 간에 경계가 허물어져가고 있는 불확실성의 21세기입니다. 모든 학문 분야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격변하는 사회가 새로운 연구주제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이미 사회학 뿐이 아니라 이미 많은 학문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사회가 함께 연구를 해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첨단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이 자연스럽게 즐겁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껴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교양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과 함께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를 미국 우수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보고서들을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버드가 그 전까지는 왜 우리가 교양교육을 할 때 7-8개의 필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가령 역사와 철학, 인간과 사회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3개의 대학들이 대부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버드가 이 영역을 내년부터 바꾸는데 그 바꾸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놀라운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4개 영역의 새로운 이름이 첫 번째는 미학과 문화이고, 두 번째는 ethics and civics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histories, societies, and individual이고 네 번째는 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ety예요. 그래서 그런 맨 처음에 미학과 문화는 사회라는 것이 꼭 안 들어가도 되지만, 그 나머지 3개 분야에서 전부 다 society라는 개념을 필수로 그

리고 특히나 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ety라고 함으로써 그런 영역 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모든 것이 사회 속에서 사회와 연관성 속에서 이뤄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와의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꾀안아야야 된다는 생각을 했구요. 그럼 어떤 목소리를 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주경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만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럼의 조직위원회 선생님들은 서울대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독특한 연구분야와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신문에서도 선생님들 활동을 보고 있는데요. 그 위원님들의 개인 연구처럼 이 포럼도 내용과 방식에서 모두 개성있고 독창적이고 그리고 깊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 운영 과정 자체가 다른 포럼들이 다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망하는 것은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이 마련이 되었으면, 정책안이 마련되면 그게 정부와 각 기관에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이 위원회나 아니면 서울대가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길은 얼마든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인 주제로 돌아오면, 지금까지 대체로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 제안을 해오셨는데요. 마지막 8차 포럼에 대한 주제가 국가의 미래, 안녕한가였고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에 쓰신 대로 그 미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안과 더불어서 다른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선제적인 정책 연구와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는 가장 난제 중 하나인, 교육과 사회통합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사회통합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서울대가 해야되고 왜냐하면 교육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해야되고, 특이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맞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맡고 있는 우리 대학에서 조차 21세기 인재는 어떠한가 하는가, 이들을 어떻게 준비시켜 내보내야지 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지한 논의는 많지 않았습니니다.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가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정부, 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필수 영역 중에 하나가 창의적 표현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창의적 표현이라고 하면 음악, 미술 인가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은 예술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각자 분야를 선택해서 거기서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하면 됩니다. 건축도 되고, 통계 프로그램도 되고 얼마든지 자기가 스스로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창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모색하고, 자기 표현의 새로운 역량을 발견하고 실패 가능성을 용인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왜냐하면 교수가 강의를 하는 데서는 학생들은 실패를 못 배우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독창적인 일을 해봐야만 실패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장애물을 식별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고안하는 것을 스스로 디자인해보는 것이 그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교육을 교수들이 고민하고 제안하고, 서울대에서 실험해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포럼에서 이런 것을 선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 통합 문제는 아까 유명순 선생님께서 현재 연구하고 계신 것처럼 갈등, 불신, 혐오 이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이겨내고 우리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탠포드 영역 중에 하나는 차이의 이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 이해하고 도전 과제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권력관계를 인식하고, 인간의 공통점과 동시에 경험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한다는 것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서 미래라는 것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 시키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시켜주는 그런 교육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정부가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같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학생들의 우수성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우수성에 대해서 재정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학업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을 뽑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사회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회통합의 문제로 보는 한은 대학은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 학교 지도 학생 중에 한 명이 지역균형으로 들어온 어려운 사정의 학생이 있었어요. 영어 능력이 쉽게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전공성적이 끝까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로 대부분 교육이 이뤄지는 부전공 분야의 성적은 너무 우수했고, 리더십은 타고 태어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 후에 거의 모든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특히 문과에서 국영수 필기 시험 0.1점 차이가 사람의 우수성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교수들이 진짜 사회에다가 대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인재를 목표로 하고 어떤 국가를 목표로 하는지를 바꿀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누가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서울대와 사회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쓰드린 것처럼 서울대가 좀 더 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있게 연구를 하고 그것을 사회와 공유하고, 또는 사회와 함께 연구하고 정책에 실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의영 위원님의 시민정치론 연구 같은 것이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더더욱 과학기술과 사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서울대학에는 200여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모델을 위해서 학제적인 특성을 높이고 특히 **조직위원회에 인문학과 이과 교수님들 또 젊은 교수님들을 모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준형) 머리가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듣다보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어딘지 환하게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김진국 대기자님, 날카로운 필서를 사용하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국) 안녕하세요, 김진국입니다. 마지막이 되니까 아까 강원택 교수님이 발제하신 그 순서에 따르면 대부분 겹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토론은 홍준형 선생님이 저한테 토론을 부탁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여기에 관여하거나 참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포럼인가부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에 부탁해서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작년에 2017년 평가보고서가 짝막하게 있고, 그 외 다른 데이터는 발표자료나 문서화되어있는 게 없고, 동영상이나 링크를 보내줘서 제가 주말에 시간을 내서 다시 그걸 직접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돌려서 봤습니다. 첫째 인상은 이렇게 좋은 내용이 왜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나... 거기에 작년에 연말 보고서에 보니까 책자로도 내고 동영상이나 다른 방식으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걸 여러 가지 고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년이 되었다 그러는데 발표자료를 문서를 묶은 자료집조차도 아직 안 되어있다? 그러면 이게 영향을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되어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치겠다는 건가.. 그동안에 보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몇 가지 사례들을 드러냈더라고요. 작년 연말 보고서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단편적이지 않나.. 실제로 외부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그동안 포럼에 참여하신 교수님들이 외부 언론이나 이런 데 칼럼으로도 단편적인 주제로는 상당히 많이 발표를 하고 계시고, 전달을 하시지만 정작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깊이있게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 주장을 한다는 게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에 이르는 생각을, **기본이 되는 베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책결정자들이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보니까 정당이나 정부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간 경우도 있다고 되어있었는데, 제가 행정실에 요청한 걸로 보면 도대체 어떤 자료를 받아갔을까? 문서화된 게 없는데. 그 다음에 동영상도 서울대 도서관에 링크

를 해놔가지고 잘 볼 수가 없거든요. 요즘에 유튜브나 다른 데 외부 동영상으로도 굉장히 배포가 많이되고, 심지어 구독자수가 몇 십만에 이른다는 **유튜버**들도 있고 한테. 왜 우리는.. 그리고 서울대도 동영상 강의를 외부로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전달이 안 될까 하는 아쉬움이 먼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보니까 정말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제가 우리가 왜 목소리를 내야하는가.. 외부에서 저희들이 미디어에서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단기적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장관들도 자기 임기 중에 실적을 내기 위해 정책을 생각하는 게 대개 일 년 이내.. 보통 장관들 수명이, 대통령 임기 같이 가고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임기 1년 중에 그 동안에 성과를 내는 데 매진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과제를 첨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학이 좀 더 제대로 장기적이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하는가의 문제.. 저는 서울대에 요구하는,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현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교수님들도 거기 참여해서 칼럼으로 의견도 말씀하시고 실사 흐름에는 따라가는데 정말 서울대에 사람들이 필요요구를 할까? **장기적인 비전, 전문성**. 일반인들은 강원택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서울대라고 그러면 모든 논란을 종결지을 수 있는 최고의 지성. 이런 게 일반인들에게는 서울대의 위상이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서울대에서는 어떤 논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럴 때는 거기에 정답을 내놓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럼을 할 때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춰야.. 전문성이 담겨있는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전문성을 이야기하다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대중 정부 초기에 김대중 대통령 IMF 오고 해가지고 경제 분야를 제일 중시하고, 본인도 경제에 대한 책도 쓰고 경제전문가라고 초선 전부터 활동을 했고.. 경제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당신 생각하고 비슷하다는 김태동 교수님을 경제 수석으로 모셔갔어요. 그런데 두 달도 안 돼서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측근을 불러가지고, 안 되더라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라, 안 되겠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오신 분이다보니까 관료가 장악이 안 되어서, 관료는 관료대로 움직이고 교수는 교수대로 움직이는, 장악이 안 되는 측면이 하나고. 워낙 다르니까요. 또 한 가지는 이론적으로는 단순하고 명쾌하고 좋은데, 굉장히 복잡한 현상들이 또는 한 측면이 있으면 반대 측면도 있고 부작용도 생기고 복잡한데 이걸 종합할 수 있는 게 경험이 없는 교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대통령이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당시 정책기획수석을 하던 강봉균 수석하고 자리를 바꿔가지고 강봉균 수석이 경제수석을 하고 이렇게 자리를 맞바꾼 일이 있습니다. 좌우간 김대중 대통령도 워낙 경제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강봉균 수석이 오고 난 뒤에는 만족을 했다고 그래요.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다고.. 그런데 전문성을 이야기하면 금방 포럼에서도 장기 비전도 내고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서울대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낼 것인가? 저는 포럼의 발족 당시에 취지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님 한 분이 자기 당신 이론을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과와 협의를 거쳐서 보고서에 되어있더라고요. 실제로 얼마나 논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제를 정할 때부터 여기 참여하신 조직위원 교수님들끼리 토론을 하고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다 그리고 조직위에서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은 사전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진 내용을 발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어느 개인의, 한 교수님의 전문성보다는 학교 내부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내용이 담긴다면 너무 일방적으로 가지 않고 다양한, 부작용까지 검토할 수 있는, 서울대 이름에 맞는 발표가 나올 수 있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공계 얘기 나왔지만, 저도 원전 문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원전이 워낙 정파적인 문제가 걸려있고하니까 참 어렵긴 한데, 만약 외부에서 본다면 방법론으로서의 공론화라는 것 뿐만 아니라, 탈원전 문제를 어떻게 봐야될 것인가를 서울대에서 해법을 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공대 선생님들이나 어느 정도는 참여해가지고 포럼을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꼭 그 분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제학이든 뭐든, 경제 분야도 초기부터 말씀하셨더라고요. 처음에 1회

발표할 때부터 탄핵이 결정되기도 전에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결정되니까 그 이후에 논의합시다. 일주일 뒤에 결정되는 걸 논의하는 거는 신문에서도 하니까, 사실은 이 토론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과제를 해야 되는데. 다행이 거길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탄핵 이후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논의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후에 그걸 또 주제로 삼아서 포럼을 하시고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시사할 점들이 많고 사회에서도 참고해야 할 점, 정부에서도 정책 파트에서 참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도 중요한데 맨 처음에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사회하시고, 지급 사법개혁도 중요한 부분인데 사법개혁도 중요하고, 적폐청산도 중요한데 맞물려가다 보니까 꼬여가지고 검찰이나 경찰 같은 데는 워낙 경험들도 많고 잘 알거든요. 이게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수사권 조정을 한다. 그 다음에 경찰 수사권을 지방 경찰로 일부 넘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유아무야되어버리고 강력한 자극도 없는데. 적폐청산이라는 걸 검경이 치고 세계 나가다보니까 오히려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사법개혁같은 건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 시간표 문제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1, 2년 단위로 본다면 대학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수순을 밟아서 풀어나가야... 예를 들면 개헌 문제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툭 던져버리고.. 현실정치에서 본 제 입장에서는 개헌을 하지 말자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게 대통령 당신 생각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수순이나 시간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정치권에서 할 수 없는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상입니다.

(홍준형) 대기자님께서 우리가 빼놓을 수 있었던 부분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만의 행동이 아니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동요하는 의미를 가지는 행동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섯 분의 토론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바가 많을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와계신 여러 분들께서도 발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끝에 교수께서 일찍부터 와계신데. 한 마디 해주십시오.

(청중 1) 항상 좋은 프로그램 많이 보내주는데 한 번도 못 오다가, 그래도 오늘은 옆동에 왔으니깐 한 번 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만 보면, 제가 예전에 예전에 하버드 로스쿨에 있을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어요. 그 때 하버드 로스쿨에서 이런 큰 방에서 소위 라운드테이블을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교수들이 딱 이렇게 8명이 앉았거든요. 그 8명 중에 4명은 리만브라더스에서 나라에 돈이 우리는.. 너무 많이 국가에서 뭐든지 지원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데 4명은 해야된다, 딱 4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찬반을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데.. 아, 여기는 정말 지식인층이 두껍구나, 두텁구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바로 똑같은 로스쿨 내에서 같은 옆방에 있는 학자들인데 정확하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부러웠거든요. 저는 국가정책포럼이 대기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그리고 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결론을 내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드는 생각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이제는 더 이상 사안이 하나의 정확한 결론을 내는 게 불가능한 거라, 이 사안이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보여줄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면,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일방적으로 끝, 끝, 끝인데 서울대 교수들은 나와서 앉아서 나와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준비를 되어있고, 나눌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되어도 사회를 향해서 바람직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준형) 이 쪽으로 마이크를...

청중 2: 안녕하세요, 저는 초대받지 않은 인문계 쪽에서 왔는데요. 전 사실 이게 항상 좋은 주제가지고 토론해서 참석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오늘하고 내일하는데.. 제가 주문을 좀 드리는데요. 과연 제가 이 자리에 나갈 때 뭘 갖고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서울대를 어떻게 바라볼까, 밖에서. 과연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서울대를 쳐다볼까? 저는 2014년도부터 합류를 했는데 서울대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안 쳐다보는 걸 쳐다보게 만드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거.. 이 설립된지 2년 밖에 안 된 것이 놀랍기는 한데. 짧게라도 페이퍼를, 결론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찬반의 의견을 내도 좋고. 저는 이런 의심을 좀 합니다. 과연 우리 국가에 정책이.. 대통령 정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정책이 과연 국가의 정책인가? 저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이전에 목표가 있거든요. 국가의 목표는 뭘까요? 그런 것을 서울대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은가? 국가의 장기 목표를 만들어내고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대통령한테 의견을 내서 4년 동안, 5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없습니다. 건설 쪽에서도 인프라 계획을 세울 때도 가장 곤욕스러운 게 국가가 어디로 가는데 계속 도로나 철도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국가의 목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가 200개 학제라고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거를 제안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만들어보면 매년 업데이트 하던지, 4년마다 한 번 업데이트 하고 수정하는 식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일반이나 정치가나 행정가들이 이 책을 교본으로 삼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형) 죄송하지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청중 2: 저는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최근에는 통일반반도 인프라를 하는데.. 이 인프라.. 너무 도로, 철도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는 보면 국가의 목표가 통일 한반도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빠져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 가령 저도 사실 지방소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스마트시티라는 게 지방소멸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계통, 사회과학 이 분야도.. 그런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하지는...

(홍준형) 성함을 한 번.

(청중 2) 이복남입니다.

(홍준형)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지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청중 3)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성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패널로 나오시고, 또 저희 위원이신 대기자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구요. 사실 첫 창립포럼 때 갔었거든요. 네 분의 잠룡이 오신다고 해서 갔었고,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이 생긴다는 소식이 반가웠고, 서울대에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기대가 있었고. 그 때 엄청 많이 왔었던데요. 근데 그 이후로 저도 주제는 보고 있었지만,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2년을 돌아보는 얘기를 주최측에서도 해주셨고 패널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고. 사실은 다양성 위원회 앞으로 일에도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도 김진국 대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를 내는데 서울대 구성원들에게 들려지는 목소리가 있고, 사회를 내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사회에 어떻게 좋은 목소리를 전달해야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더 고민을 말씀 드리면, 서울대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이 목소리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하는데. 특히 여기서 다른 주제들은 전공을 초월하는 주제라

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큰 주제를 다루는데. 저는 이 포럼이 공론의 장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신 것이 굉장히 애석한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구성원, 특히 4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와서 전공을 초월해서 이런 큰 주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포럼을 기획하실 때 **학생들을 참여시킬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중 4)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부 학부 이해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학부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수업을 말씀하셨는데 학부를 받으면서 질문들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수업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강원택 교수님 한국정치론 수업도 듣고 있고, 이현숙 교수님 세포생물학 하고 암 관련된 세미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서 능동적으로 수업들을 참고해서 내가 뭔가 성취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있어야 사회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학부생들이 무조건 졸업을 할 때 논문 하나 제출하는 거 말고, 학생 자율 연구. 자율전공학부에서 하는 것처럼, 자율연구를 무조건 하나씩 하게 해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하고 생명과학을 복수전공, 연계전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이공계 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 생각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예를 들어 원전 문제라던가, 과학기술 관련된 인공지능 문제라던가, 이런 정책포럼에 와서 교수님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 훨씬 더 시야도 넓어지고 어떤 공부를 하는 방향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포스터만 보다가 이번에 처음 오게 됐는데 앞으로 어떤, 내일도 오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부생들한테도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준형) 혹시 패널로 참여하신 분께서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그럼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의 귀중한 고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갖게된 생각은 우선 대내외적으로 국가정책포럼이 서울대 모든 전공을 망라해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서 운영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제도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나라와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메가 이슈들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시류에, 혹은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카이브를 해나가서 장기적인 과제와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복남 박사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실했다는 반성을 합니다. 대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말씀을 듣고 부끄러웠는데, 매번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정부에도 전달하고, 국회에도 전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게 빨라지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포럼에 대한 인지도가 서울대 내에서조차도 굉장히 낮은 것을 자인합니다. 학생들도 잘 모르고 있고요. 학생들 얘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잘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대 구성원들에게 나가는 메일을 통해서 여러 번 공지를 했는데, 참석 인원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다소 참석 인원이 적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오늘 한 내용을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기한 내용을 문헌으로 작성해서 조직위원장들 공유는 물론이고, 조직위원회 홈페이지가 아직 정비가 안 되어있었습니다만, 새예산을 받아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라도 포럼을 통해서 그런 제안들이 오고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주셔서 저희는 새삼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속에서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견을 듣고 고무되었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분들도 이공계에서 나온 연구성과들을 서로 엮어서 표출할 수 있는 경로를 아쉬워한다는 말씀도 상당히 놀랐고, 굉장히 고무되었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들.. 우리가 정책과정에 관한 이론 중에서 문제 인식과 대안의 흐름에 연결해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권순만 교수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포럼이 있습니다. 포럼의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은 어떤 면에서 그야말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나갈 수 있는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은 연구와 교육으로부터 생긴 역량, 학문적 역량이 바탕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령 언론이나 다른 분야에서 국가정책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우리 국가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비전 중심으로 우리가 발전해나가야 된다는 고언을 명심하면서 오늘 짧지만 아주 집중적인,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